

좌초 위기 국립의대 '1월 데드라인' 속 순천대 선택 주목

통합 찬성 기준 미달로 재투표 변수…통폐합심사위 시한 임박
의대 정원 배정 공백 우려…전남 의대 공모 방식 전환 예측도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순천대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정원 배정과 두 대학 통합 절차가 동시 추진되고 있었는데, 순천대가 통합 찬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설정한 두 대학의 통합 결정 시기는 1월까지로, 순천대가 기간 내에 통합의 단추를 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두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남은 통합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통추위는 24일로 예정됐지만, 순천대가 통합 찬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는 통추위에 앞서 내부 의견 수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가 구성원 동의 기준을 충족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 발표를 내년 초로 미룬 가운데 만약 전남 대의 정원이 배정될 경우, 배정받을 학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두 대학이 통합에 실패할 경우, 전남 국립 의대는 과거에 추진됐던 공모 방식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공모에 참여할 대학은 사실상 목포대와 순천대 두 곳이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대학 통합 실패 사례가 순천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아울러 두 대학은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대학'에 선정된 곳으로, 통합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천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심사위와 추계위 일정 등을 파악한 뒤 대학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민간·군 공항 업무 통합 않기로

교통운영과 요구안 검토 필요

광주시가 민간공항 업무와 군공항 이전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려면 시 내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진행한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통운영과가 제출한 사무 이관 요청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통운영과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항공교통, 항공 이용 편의증진, 광주·무안공항 통합 및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 공항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4개 사무를 군공항건설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소관 부서를 일원화해 이전 정책을 군공항건설단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이 업

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조직 구성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은 이 같은 통합 요청에 대해 '미반영' 결정을 내렸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이전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서로 나뉘어 있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추진 절차 또한 상이해 당장 업무를 합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두 공항의 이전 절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운영과의 요구안은 추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광주시의 민간공항 관련 업무는 협행대로 교통운영과 맡고, 군공항 이전 업무는 군공항건설단이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몰래온 산타'와 동행해보니

연말을 앞둔 광주 곳곳에서 '몰래온 산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연말의 기억을 선물하는 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일보 기자들이 각 자치구 산타들과 동행, 나눔의 현장을 함께 했다.

"축구화 꼭 필요했는데… 날마다 축구해야겠어요"

남구 봉선동 누리봄 그룹홈에 소원물품 선물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누리봄공동생활가정 거실이 화려한 포장지의 선물상자와 서둘러 이를 열어보는 아이들이 터뜨린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광주시 남구는 이날 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찾아 50여명의 아동과 돌봄이웃들에게 '소원 물품'을 전달하는 '2025 메리크리스마스 사업'을 진행했다.

산타가 공동생활가정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노크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고 "산타 선생님, 안녕하세요!"며 인사를 건넸다.

선물은 아이들이 미리 고른 '소원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어본 아이들은 먼저 축구화가 나오자 박수를 퍼울에 얹고 끈을 풀어 바로 신어 보기 바빴다. 뒤큄침 뒤로 넣어본 손가락은 반 마디 정도가 들어갈 만큼 살짝 끌어냈던 신발에, 아이는 "딱 맞는다"며 활하게 웃고는 "축구화가 다 닳아졌다. 맨날 축구하러 가야겠다"고 말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열린 패딩 착용식에서도 A군은 지퍼를 끝까지 올린 뒤 팔을 뻗어 양소매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곤했다. 늦은 하교를 마치고 도착한 B군도 책가방도 안 벗고 축구화와 패딩을 입어보더니 "짱 따뜻하다. 좋아요"라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한규 누리봄공동생활가정 원장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하나 사주려 해도 지원금을 몇 달씩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 챙기기 어렵다"며 "오늘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산타 만나니 한해가 마무리 되는게 실감나요"

서구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물상자 나눔

광주시 서구 주민들과 봉사원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련한 '꿈지락 마을 몰래온 산타' 행사에서 직접 산타가 돼 선물을 나눠줘 보니, 아이들의 순수한 행복이 서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이날 오후 산타 복장과 반짝이는 머리띠를 쓰고 성탄 소품이 가득 든 상자와 가방을 들고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방문,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 아이들의 '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명은 아이들을 한명 한명 꼭 안아주며 성탄인사와 선물꾸러미를 건넸고, 아이들은 수줍지만 밝은 미소로 환답했다.

그룹홈에서 지난 5개월여 된 A(12)양은 "산타를 만나니까 한해가 마무리되는 게 실감난다"며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B(9)양은 "따뜻한 선물 쟁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새해 소망도 나눴다.

이날 서구에서 몰래온 산타를 만난 취약계층 아동은 모두 30명. 텔후리스와 간식 세트가 담긴 선물 상자에는 아이들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고희자 화정2동 지사협 위원장은 "11년째 이어오는 일인데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고마워진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연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엄마 안마 해드리니 산타 선물이 찾아오네요"

북구 용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5가구에 전달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주초에 '깜짝 산타'가 등장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용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30명이 산타복장을 하고 하굣길 학생들에게 선물과 풍선을 나눠주는 행사를 연 것이다.

이날 행사에 동행해보니, 산타를 발견하고 "산타다!"를 외치며 우르르 몰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주변을 지나던 이웃 주민들도 합박웃음을 짓는 등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양새였다.

박희재(7)군은 "엄마 안마를 해드렸는데 착한 일을 하니까 선물 받은 것 같다"며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었다. 나윤서(11)양은 "산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 산타의 존재를 믿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문라임(9) 양 등 학생들은 선물과 함께 헬륨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며 해맑게 웃었다.

용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년여 동안 성탄절에 용봉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돌아가며 산타 선물을 전해주고 있다.

작년부터 산타행사에 참여했다는 강정희(여·68)씨는 "작은 선물에도 행복해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모른다"며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랑감까지 생겼다"고 뿌듯해했다.

협의체는 이날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5가구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주민들의 추천과 발굴을 통해 선정된 한부모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5가구 아이들에게 1인당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다.

/양체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7년 만에 녀석들이 돌아왔다?!

2026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내가
누구~~~게?

개판5분展
SEASON II

2025. 12. 25(목) ~ 2026. 2. 22(일)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 2월 16일(월) 정상운영

2월 17일(설날) 및 2월 19일(목) 휴관

주최 · 주관 : 남원시 문의 전화 : 063-620-5752~4